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현대에 있어서 이미지라는 표현은 하나의 유행어처럼 되어 있다. 인간상을 비롯하여 교회상, 목사상 등 다방면으로 쓰여지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조직혁명이라는 책을 써서 파문을 던진 K. Boulding은 이러한 이미지에 관해서 대단히 흥미있는 저술을 발표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이미지는 시간, 공간, 인간, 단계, 감정 등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미지 즉, 상(像)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얼핏 막연한 느낌과 같은 것으로 들리지만 사실 우리의 구체적인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현실적인 힘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

이미지의 형성에는 밖으로부터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음에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마치 냉온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thermostat의 원리와 같다. 유기체에 있어서는 Homeostasis의 원리와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이미지를 밖으로 투사하는 상호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이미지는 깨어지고 마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이러한 다이나믹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밖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가치관의 붕괴나 부조리로 말미암아 통합성을 이루지 못할 때 깨어진 이미지가 인격의 통합을 막아 버리게 된다.

엘리엇은 산더미 같이 깨어진 이미지를 물려 받았다고 한 것도 이런 뜻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인간이 자아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왜 깨어져가는가?

여기에 인간 소외의 문제가 대두된다.

에릭·프럼은 〈The Sane Society〉에서 인간 소외의 과정을 냉철하게 묘사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생산과 소비생활에서 빚어지는 소외는 현대의 고질과 같이 다루어져있다.

생산자는 이미 생산의 수단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돈으로 쓸모있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환 가치로써만 물건을 산다. 현대인의 소비 생활은 완전히 소외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나 사기업체의 관료제도는 인간 소외의 메카니즘으로 화하고 있다. 인간은 자유롭고 책임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기구 조직의 메카니즘 속에서 한개의 톱니바퀴의 구실 밖에 못한다.

현대인의 제일 심한 소외는 교육에서 먼저 심각하게 나타난다. 인간성의 충실을 위해서 받아야 할 교육이 이제는 마케팅 오리엔테이션의 방편으로 화해 버리고 기업화 되어가며 교육의 목적이 졸업장의 매매로 전락되고 말았다.

에릭·프럼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진 소외 현상을 사회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예리하게 분석했지만 그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다. 그는 다만 현대인의 자기 해방, 새로운 휴머니즘의 윤리를 강조했지만 윤리 문제의 근본인 가치관의 형성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는 메스로 해부는 하였으나 병자의 완전 치료에 대한 구상도 제시하지 못했다. 현대인은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치유 구원을 회구하였다. 현대인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자 한다. 그러나 프렘의 사상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볼 수 없다. 다만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해부했을 따름이다.

인간의 자기 소외에서 가지는 깨어진 자아의 이미지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을까? 세속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통합성의 붕괴, 부서진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예외없이 정신 분열증이 아니면 파라노이아에 걸려있다.

기독교의 복음의 현대적인 과제는 어떻게 하면 통합된 자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휴머니티를 유지하면서 변화가 심한 현세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소외의 항의가 현재 비종교계인 형태로 번지고 있다. 히피족의 반항은 현대 문명에 대한 항거인 것이다.

리처드·니버는 인간이 가지는 자아 이미지를 제작적 인간, 그리고 시민적 인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책임적 자아—The Responsible Self) 인간은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격언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아 인식이야말로 인간을 밖에서 오는 메시지에 대한 응답(Response)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응답할 수 있는 테서만, 진정한 책임이 생겨진다. 책임은 이렇게 자아 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자아 상실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인간이 책임적인 자아의 이미지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현대 한국에 있어서 책임적인 정치나 가정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응답을 할 수 있는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 점에서 기독교적인 자아 이미지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에릭·프롬이 제시한 현대인의 소외는 이러한 책임적인 자아의 통합성으로서만 해결될 수가 있다고 본다.

사실 유럽 사회에서는 중세기의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문예 부흥과 계몽 시대의 삼백년 동안 자아 추구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적인 전통적 가치 의식 속에서 자아를 추구하지 못하고 늘 자아는 매몰되어 있다가 현대에 와서 근대화의 과정이라는 와중에 뛰어 들어가서 여기서 또 조직과 기구 속에 경험하는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현대 한국의 윤리 문제의 바탕에는 이러한 중대한 위험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신앙은 언제나 응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을 하는 자아 속에서 책임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였다. 이 응답의 생활 속에서 자아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것만이 현대화의 와중에서 겪는 인간의 자기 소외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